

# “운동은 해야지” vs “감염 우려돼”... ‘홈짐’ 대어 갑론을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헬스장 등 시설들의 영업이 중단되자, 일부 헬스인들 사이에서 ‘근손실 예방’을 위한 ‘홈짐(헬스장처럼 꾸며놓은 개인 주거지) 대어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동할 장소를 잃은 일부 헬스인들에게 일일 이용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은 뒤 개인 홈짐을 빌려주는 방식의 거래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8명으로 서울 만에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섰다.

전날 8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는 하루 사이 약 2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3일부터 이날까지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40명→628명→577

거리두기 2.5단계, 헬스장 등 영업 전면 금지

“마음 편히 운동하세요”...홈짐 홍보글 올라와

“프로틴 제공하고 운동 보조도...하루 1만원”

“가격 합리적이다” vs “감염 우려” 찬반 의견

명→631명→615명→592명→671명→680명→689명→950명→1030명→718명→880명→1078명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코로나19 급속 확산 속에서 거리두기가 2.5단계가 격상,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자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개인 홈짐 대여합니다’ 등 제목의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작성자들은

자신이 갖춰놓은 운동기구들을 찍은 사진과 함께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며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홈짐 홍보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코로나19 때문에 헬스장 가기 힘든 분들, 제 개인 오피스집에 와서 운동하시면 된다”며 “솔터프레스, 체스트프레스 레그익스텐션, 런닝머신 등 필요한 장비들은 모두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홈짐 ‘일일 이용권’은 7000원에서 1만원 사이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홍보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헬스장 대신 제 개인 홈짐에서 에어컨 틀고 편안하게 운동하시면 된다. 운동 보조도 해드립니다”며 “운동 전후로 프로틴 셰이크도 제공한다. 서로 운동 지식을 공유하자”고 했다.

해당 게시물은 “주차 가능하면 바로 갑니다”, “주차 가능한가요?” 등의 댓글들이 달렸고, 작성자는 “지금 거의 예약이 꽉 찼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다른 게시물에는 “필요시 3대 운동 알려드립니다”, “프로틴 섭취 가능”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홍보글을 본 한 네티즌은 “프로틴 제공에 운동 보조도 해주는데 시간 제한없이 하루 이용에 7000원이면 조건이 좋은 것 같다”며 “가격이 합리적이거나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며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에 휴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반면 “아무리 개인 홈짐이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운동하는 방식인데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지

않느냐” 등 우려하는 반응들도 있었다.

서선욱기자



생존권 보장 촉구하며 삭발식하는 헬스관장들  
기자회견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관련

## “목사에게 성 착취 당했다”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착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목사에게 성 착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는 최근 20대 여성 3명으로부터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성 착취를 당했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A목사가 자신들을 추행하고 관련 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목사를 입건하고, 이날 A목사 교회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수사 초기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감염경로 불분명’ 광주서 코로나 추가 확진

증상 나타나 스스로 병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

광주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16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역의 최근 확진자와 접촉 기록이 없는 2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광주830번·831번으로 분류됐으며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기침과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타지역 방문 기록 등을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가족 등 밀접접촉자를 파악해 코로나19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830번과 831번은 코로나19 증상이 느껴져 스스로 병원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와 밀접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봉우기자

## 광주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2주간격 정기검사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전남 화순의 한 요양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가 고위험시설에 대한 검사 주기를 4주에서 2주간격으로 줄여 시행한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최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며 따라 4주간격의 전수검사 주기를 2주로 앞당겨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화순의 한 요양시설에서는 지난 13일 직원이 감염된 이후 동

료와 입원 환자 등 4명이 잇따라 감염돼 현재 동일집단 격리 조치됐다.

광주시는 지난 10월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4주간격으로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등 153개소 1만6646명을 검사했으며 모두 음성 이 나왔다.

또 요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종사자 등 382개소에 대해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2차례 검사를 실시해 1만199명 음성, 952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존 종사자만 대상이었던 곳은 2주간격 검사에서는 전체 입원환자

까지 확대된다.

광주시는 이와함께 요양시설 전수검사 방식을 다양화 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타액유전자증폭(PCR)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요양시설의 경우 치매노인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감염자가 나올 경우 확산속도도 빨라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4주에서 2주로 줄였다”며 “환자와 보호자,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우선이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